



즉시 배포용: 2019년 6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 웨스트 빌리지의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 개관 발표**

*새로운 센터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환영하며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를 장려하는 장소로서 뉴욕주의 위상을 강조*

*오늘, 뉴욕에서 성소수자 프라이드 달(LGBTQ Pride Month)이 시작*

*센터 사진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New York State WorldPride Welcome Center)의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뉴욕시 웨스트 빌리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112번지에 위치하며, 스톤월 기념비(Stonewall National Monument)에서 가깝습니다. 최대규모의 국제 성소수자 프라이드(LGBTQ Pride) 행사인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는 스톤월(Stonewall) 50주년과 함께 이번달 뉴욕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이드(Pride)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그리고 스톤월(Stonewall)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개최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평등 결혼법에서 성표현 비차별 법(Gender Expression Non Discrimination Act, GENDA)의 통과, 성전환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Trump 행정부와 싸움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이 커뮤니티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뉴욕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는 뉴욕의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뿌리와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뉴욕주가 혐오가 발붙일 곳이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성적 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인 뉴욕주에서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이나 폭력에 직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만드는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축하합니다. 우리가 스톤월(Stonewall)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새로운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는 스톤월 기념비(Stonewall National Monument)와 가까운 곳에서 커뮤니티와 평등의 중요한 기둥으로 우뚝 서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받아들이는 주로서 미국을 선도하는 한편, 우리의 역사를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

뉴욕시 프라이드(NYC Pride)/프라이드 오브 헤리티지(Heritage of Pride)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뉴욕주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New York State WorldPride Welcome Center)는 스톤월 일(Stonewall Inn)의 원래 부지에서 단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1969년 6월 28일,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일원들은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서 충동적인 시위를 시작하여 6일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마타신 소사이어티(Mattachine Society)와 1950년대 빌리티스의 딸들(Daughters of Bilitis), 1960년대 스톤월(Stonewall) 항쟁, 2010년대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평등 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 제정 등을 다루는 타임라인 갤러리를 통해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뉴욕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프라이드의 컬러인 무지개색은 웰컴 센터(Welcome Center) 곳곳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아이 러브 뉴욕 성소수자(I LOVE NY LGBT) 로고가 장식되어 있는 셀카 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머리 위의 센터 천장에는 창조적으로 해체하고 해석한 프라이드 깃발이 있으며, 무지개색은 센터의 셀프와 조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행과 관광의 촉진은 웰컴 센터(Welcome Center)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입니다. 비디오 월에는 성소수자(LGBTQ)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 전역의 장소가 표시되어 있으며, 월드프라이드(WorldPride)와 함께 열리는 특별 행사 일정을 홍보합니다. 인터랙티브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키오스크를 통해 방문객들은 뉴욕주에 대한 지식을 시험해보거나 관심사에 따라 관광지를 추천받아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Alphonso David** 주지사 법률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성소수자(LGBTQ)의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진보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법이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LGBTQ) 평등을 위한 투쟁에 기여한 활동가들을 기념하는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 인태와 통합이라는 위대한 정신을 구현합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는 방문객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뉴욕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전역의 인기

있는 성소수자(LGBTQ) 행사 및 관광지를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백만 명에게 홍보할 것입니다."

**뉴욕주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년이 넘도록, 아이러브 뉴욕(I LOVE NY)은 방문들에게 뉴욕주에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를 경험하라는 초청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로 인해 성소수자(LGBTQ) 여행객들이 올해의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축제 기간은 물론 향후 휴가 기간에 계속해서 주 전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을 탐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뉴욕시 프라이드/헤리티지 오브 프라이드(NYC Pride/Heritage of Pride)의 Chris Frederick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는 이 역사적인 해에 월드프라이드(WorldPride)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우리는 6월 내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웰컴 센터(Welcome Center)의 완공으로 인해,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스톤월 항쟁(Stonewall Uprising)과 우리의 풍요로운 역사, 그리고 뉴욕시와 뉴욕주의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께 웨스트 빌리지 중심에 위치한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를 방문해, 이 역사적인 해에 프라이드(Pride)를 체험할 수 있는 수백 만개의 여정 중 하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의 Glenda Testone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맞아 수백만 명의 뉴욕시 방문객을 맞이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와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 등의 장소를 통해 우리 뉴욕시가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해 이루어 온 풍요로운 역사를 알리고 프라이드(Pride)를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게 안전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업에서 Cuomo 주지사와 뉴욕시 프라이드(NYC Pride)와 함께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2019년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기념 행사에는 행진, 공연, 축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증진하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뉴욕을 방문하는 약 4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 작업으로 뉴욕주와 아이러브 뉴욕(I LOVE NY)은 계속해서 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스톤월 50(Stonewall 50)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의 방문 및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 뉴욕(I LOVE NY)은 지난 해에 걸쳐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과 스톤월 50(Stonewall 50)의 주최측인 뉴욕시 프라이드(NYC Pride)/헤리티지 오브 프라이드(Heritage of Pride)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에서 프라이드(Pride) 행사를 활성화 행사 장소 및 주를 여행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쇄물과 디지털 광고 캠페인 등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뉴욕주 전역에서 열리는 특별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2019 여행 가이드(Travel Guide)를 포함한 아이러브 뉴욕(I LOVE NY) 성소수자(LGBT)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유일한 공개 성소수자(LGBTQ) 의원인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 스톤월(Stonewall)에 처음으로 벽돌을 던져, 성소수자(LGBTQ) 인권을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는 평등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올해 특히 우리는 결국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성 전환자 뉴욕 주민을 위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WorldPride Welcome Center open)가 오늘 개관해, 성소수자(LGBTQ) 인권의 진보를 축하하는 국제적 행사의 시작일을 기념하는 것을 목격하여 매우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뉴욕시가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유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더욱 기쁘게도 뉴욕주 월드프라이드 웰컴 센터(New York State WorldPride Welcome Center)가 미국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중심지인 그리니치 빌리지의 중심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축하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계속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위해 지속된 지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남아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를 방문하시는 손님 및 활동가들을 맞이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톤월(Stonewall) 50주년을 기념하며 성소수자(LGBTQ)의 평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New York City Council)의 **Corey Johns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일어난 스톤월 항쟁(Stonewall Uprising)은 전 세계로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월드프라이드(WorldPride)가 뉴욕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저는 이 웰컴 센터의 개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는 스톤월 인(Stonewall Inn)은 물론 저의 하원 지역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니치 빌리지는 물론, 뉴욕의 모든 즐거움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뉴욕은 역사적인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킬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Paul Feinman을 뉴욕주 최고 법원인 뉴욕주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배석판사로 임명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인정한 후, 이 법원에서 재직한 최초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및 한심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의 역사적 승리를 알렸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전염을 박멸하고 성전환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와 보험 규정을 강화하는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2013년 Cuomo 주지사는 아이러브 뉴욕(I LOVE NY) 성소수자(LGBT) 관광업 계획을 시작하여 광고, 소셜미디어, 체험 마케팅을 통해 700억 달러 규모의 성소수자(LGBTQ) 국내 여행 구간을 홍보했습니다. 주지사는 작년에 2016년 6월 뉴욕의 올랜드 펄스 나이트 클럽의 총기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과 증오, 편협, 폭력의 모든 희생자를 포함하여,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기리는 뉴욕의 공식적인 기념비를 발표했습니다. 예술가 Anthony Goicolea가 디자인한 이 기념비는 허드슨 리버 파크(Hudson River Park), 그리니치 빌리지 서쪽 끝에 있습니다. 2018년 Cuomo 주지사는 이번에 뉴욕주 평등권 헤리티지 센터(New York State Equal Rights Heritage Center)를 개관하여 모든 미국인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뉴욕 리더십의 역사의 일부로 성소수자(LGBTQ)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